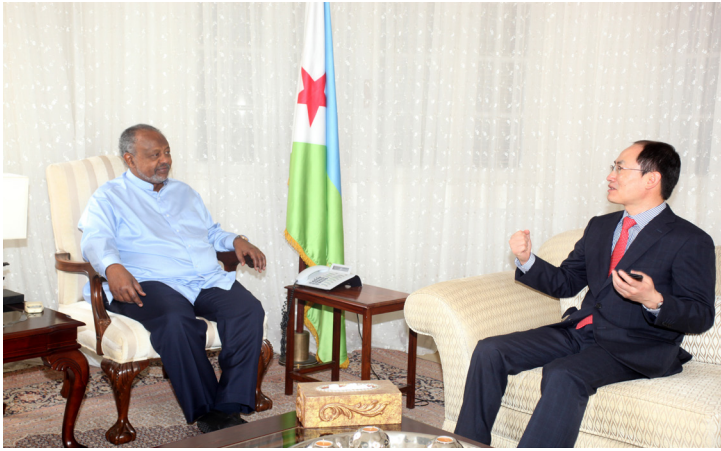




# KC NEWSLETTER

VOL. 44





## FEATURES

04 PROJECT OF THE YEAR 2012

05 환경기업 CEO 간담회

06 지부티 공화국

09 유니세프

10 한국환경산업협회

11 KCMS

12 KC Glass

15 KCHM

# KC Glass & Materials



17 칭찬합시다

18 사랑나누기

22 육체건강, 정신건강



# FROM THE EDITOR

여기서 더 머물다 가고 싶다  
황지우

평! 튀밥 튀기듯 벚나무들,  
공중 가득 흰 꽃팝 튀겨놓은 날  
잠시 세상 그만두고  
그 아래로 휴가갈 일이다

눈감으면;  
꽃잎 대신 잉잉대는 벌들이 달린,  
금방 날아갈 것 같은 소리 나무 한 그루  
이 지상에 유감없이 출현한다

눈뜨면, 만발한 벚꽃 아래로  
유모차를 몰고 들어오는 젊은 일가족;  
흰 블라우스에 그 꽃그늘 받으며 지나갈 때  
팝콘 같은, 이 세상 한때의 웃음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內藏寺 가는 벚꽃길; 어쩌다 한순간  
나타나는, 뜬 세상 보이는 날은  
우리, 여기서 찌끔만 더 머물다 가자



## KC GreenHoldings

지원팀	이상민 팀장
지원팀	황상훈 대리
기획팀	여주희 대리
지원팀	하혜진 사원

## EPC

기술연구소	이창희 사원
해외사업부	김재수 선임
해외사업부	이보람 사원
해외사업부	정호중 사원
발전민수사업부	김지선 사원
지식경영팀	이상한 사원

## Environmental Service

KCLS	정문택 상무
EcoCycle	서정철 부장
KCHM	최성관 차장
KCHM	박은향 사원
KCES	이정식 과장
KCEC	김정은 사원
CHKOR	조은주 차장

## Manufacturing

NWL-P	정행순 차장
CHKOR	조은주 차장
AGLS	홍세라 주임

## Renewable Energy

KCEN	이유미 사원
------	--------

## KC코트렐 ‘Project of the Year 2012’ 선정

3개 프로젝트 후보 중,  
참여자 평가로만 선정, 값진 프로젝트



Project  
of the  
Year 2012

1등 ESP/AHS/FGD System Upgrading Project(Taiwan)

2등 삼천포화력제1,2호기전기집진기1단증설공사

지난 3월 6일 발표되었던 Project of the Year 2012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3개 후보 중, 영예의 1등을 수상한 프로젝트는 해외사업부 ‘ESP/AHS/FGD System Upgrading Project(Taiwan)’가 차지 하였다. 발표 현장에 참여한 인원들의 평가표로만 순위를 선정하는 Project of the Year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KC코트렐 직원들의 가장 큰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해외사업부는 수상의 기쁨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하였다.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한 프로젝트는 발전민수사업부 기술서비스팀의 ‘삼천포화력제1,2호기전기집진기1단증설공사’이다. 간발의 차로 2등을 차지한 기술서비스팀은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다. 올해 Project of the Year 2012에서는 작년과 다르게 K-ONE 활용 지표가 평가 사항으로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타 프로젝트에서도 꾸준히 K-ONE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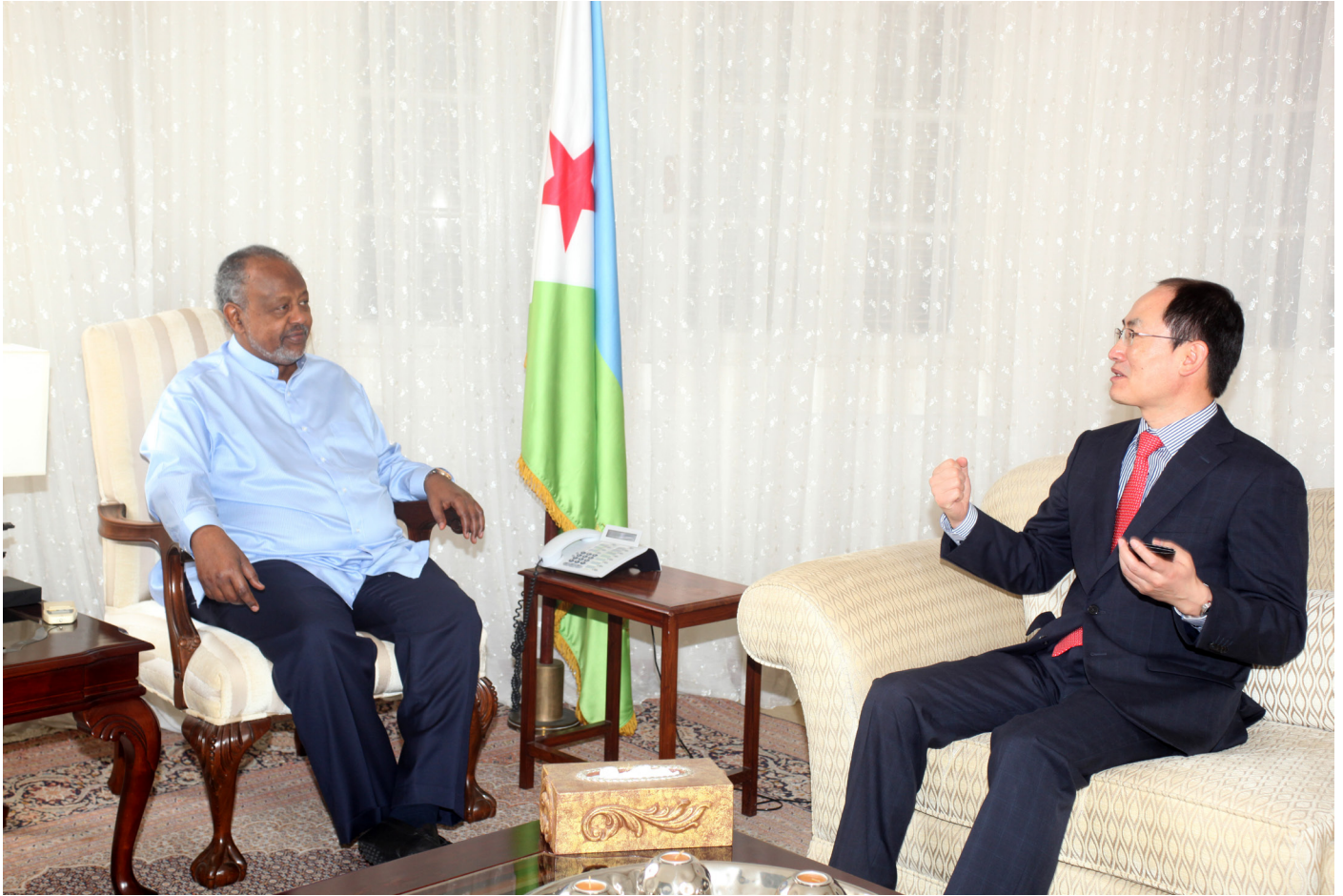


## 환경부 장관-환경기업 CEO 간담회

환경시장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에 주목해야  
한다

4월 1일 환경부는 환경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환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부-환경기업 CEO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 이태영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업계 현안, 애로사항 등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대표하는 중소 환경전문기업과 대,중소기업 CEO가 한 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9%대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의 활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경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환경협력체계 구축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과 새로운 해외 환경시장의 개척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분야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상생방안 등을 지원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지부티(Djibouti)의 뜨거운 태양속으로

### 지부티 공화국 태양광발전프로젝트 개발 협력

KC Green Holdings 및 KC Cottrell 이태영 대표이사  
가 3월 17일~22일 아프리카 홍해 해협에 위치한 지  
부티 공화국을 방문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주요  
인사와 미팅을 갖고 지부티의 항만 시설 지붕을 활  
용한 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  
의하였다. 지부티는 홍해가 아프리카와 동북부와 사  
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서 남단 끝을 빠져나가 인도양  
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한 인구 90만의 작은 나  
라이다. 한 해 평균기온이 30도를 넘고, 특히 여름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데다 담수자원 분포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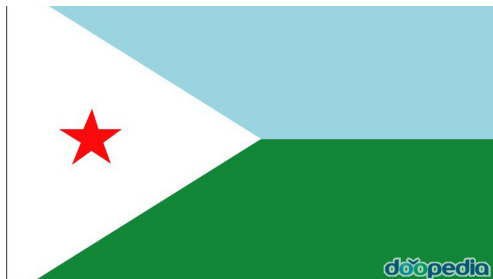
국토의 0.1% 미만인 매우 척박한 지역이다. 인구의  
절반은 사막을 뚫고 다니는 유목민이며 나머지 인구  
중 대부분이 수도인 지부티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  
러한 척박한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유럽  
및 아시아를 잇는 석유수송로의 길목을 점하고 있  
고, 내륙국가인 인접한 이디오피아 및 남수단의 교  
역항 역할을 통해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약 1만 명의 상  
주병력을 파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 지부티

항구 주변에 길게 이어진 컨테이너 트럭과 야적된 컨테이너들의 대부분이 인접한 이디오피아로 가는 화물들이다. 현지에서 만난 지부티의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남수단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수출을 위해 남수단, 이디오피아와 지부티를 잇는 약 3십억 달러 규모 Pipeline 건설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부티 정부가 생각하는 지부티의 미래의 구상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지부티를 아프리카 동부와 서방세계를 연결하는 “Green Hub”로 위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Green Hub”의 실현을 위한 세부 Program 중 하나로 지부티의 태양광 및 지열자원을 이용하여 현재의 디젤발전소를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지부티는 자체 디젤발전소를 통한 전력공급을 위주로, 모자라는 전력을 수백 킬로 떨어진 이디오피아에서부터 Hydro 전기를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디젤발전의 높은 단가가 지부티의 주 산업인 호텔 및 물류단지의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정부관계자와 업계의 경영자들이 태양광발전의 활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았다. 현재 지부티 국영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전기



의 요금은 항만 등 상업용시설의 경우 kWh 당 US 31cents, 그리고 호텔 등 상업시설의 경우 42 cents이다. 현지 방문기간 동안 현지에서 투숙한 세라톤호텔, 그리고 지부티 항구에 입주한 미국 물류회사인 Seven Seas의 매니저와는 각각 자체 보유 건물의 지붕과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의 상담도 진행되었다. 특히 지부티 항구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Djibouti Free Zone의 사장과 미팅을 통해 물류센터에 위치한 4개의 물류창고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Free Zone이 제공한 도면을 바탕으로 KC Solar Energy의 엔지니어링 팀에서 잠정적으로 설계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4개 물류창고 지붕에 설치가능한 태양광 용량은 약 8.4MW이다. Djibouti Free Zone의 경영진, 그리고 지부티 정부관계자들은 KC가 최근 준공한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20MW태양광 프로젝트, 그리고 광양항 물류센터의 2.3M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KC와 협력을 통해 지부티의 관문인 Free Zone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Green Hub’로 가는 의미있는 출발을 희망하고 있다. 이태영

대표이사는 지부티를 출발하는 당일 오전 지부티의 대통령인 Ismail Omar Guelleh를 예방하고 약 40분 가량 지부티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관심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래 사진). 이 자리에서 Djibouti Free Zone과 논의한 지부티 물류센터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다. 이태영 대표이사의 지부티 방문에서 합의한 태양광프로젝트 개발은 KC Solar Energy에서 후속작업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명칭은 지부티공화국(Republic of Djibouti)이다. 북쪽으로 에리트레아, 서쪽과 남쪽으로 에티오피아, 남동쪽으로 소말리아와 국경을 접하며, 국경의 나머지는 홍해와 아덴만에 면한다. 1958년부터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3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아프리카에서 50번째 독립국이 되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인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에 위치한 탓에 역사적으로 인접국과 강대국간의 쟁탈전에 오랫동안 희생되어왔다. 최근 미국이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석유벨트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기지를 설치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군 1500명을 파병했다. 행정구역은 5개 주(cercle)로 되어 있다.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94%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 KC코트렐, 지구 환경을 넘어 세계 어린이를 위해 나아가다



작년 9월, KC코트렐은 한국남부발전(주)과 성과공유를 통한 사랑에너지 나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2012년 9월 12을 시작으로 1년간 진행되며 유니세프의 고통 받는 세계 어린이 구호 활동 후원금을 위해 이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29일,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남부발전과 함께 유니세프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KC코트렐 대표로 박기서부사장이 참가하였고,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안성기 유니세프 친선대사 외 7개의 협력사 임원들과 자리하였다. 후원금으로 전달된 기금 1억원은 남부발전의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과 공유한 재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료가 면제될 수 있었던 중소기업 사회단체기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성과공유금을 전달 받아 직접 유니세프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의미 있는 사회환원활동이며 동반성장 결실로 조성된 기금을 기업간 상호협력관계로 유지시켜 세계 어린이 구호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것이 이 협약식이 갖는 특징이다.

KCMS

## 한국환경산업협회 실무진 KC코트렐 안성공장 방문

미래환경을 위한 역량과 가능성을 보유한  
종합 환경기업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



2013년 4월 5일 한국환경산업협회 윤응로 부회장을 포함한 실무진 6명이 안성공장 현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박기서 부사장, 이기환 상무의 회사 일반사항, 사업소개 프리젠테이션 이후 공장 생산/연구동, 테스트 타워를 정재선 팀장의 설명과 안내로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KC코트렐의 전문사업 분야가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KC그린홀딩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산업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래환경을 위한 역량과 가능성을 보유한 종합 환경기업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설립되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대중소 회원사간 상생발전 모색, 시장개척단 운영 등 해외진출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C코트렐은 임원사 자격으로 최초 협회 설립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 안전도 우리가 책임진다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무재해3배)

KCMS 직원들의 지속적인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없는 직장 만들기 구현을 위해 2009년 8월부터 시작한 무재해 달성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달성인증서(무재해3배) 받았다.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KCMS의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무재해 운동이 정착되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진 것은 물론 KCMS의 생산성 증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무재해 달성을 위해 지금처럼 앞으로도 KCMS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2013000210 호

##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사업장명: KC코트렐(주) 안성공장  
대표자: 이태영  
무재해기간: 2009.08.11 부터  
2013.01.09 까지  
무재해시간(일수): 1,016일  
달성배수: 3배

위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 결과 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인증 합니다.

2013 년 02월 2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 102992 호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표창장

KC코트렐  
직장 원 유 섭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상공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



## 원유섭 직장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

KCMS 원유섭 직장이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원유섭 직장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상공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이번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KCMS의 직원들이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KC Glass & Materials

안성유리공업은 40년의 역사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리병 제조 전문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신 성장동력으로서 소재사업의 육성의지를 표명하고자 2013년 3월12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KC글라스㈜[영문 KC Glass & Materials Co.,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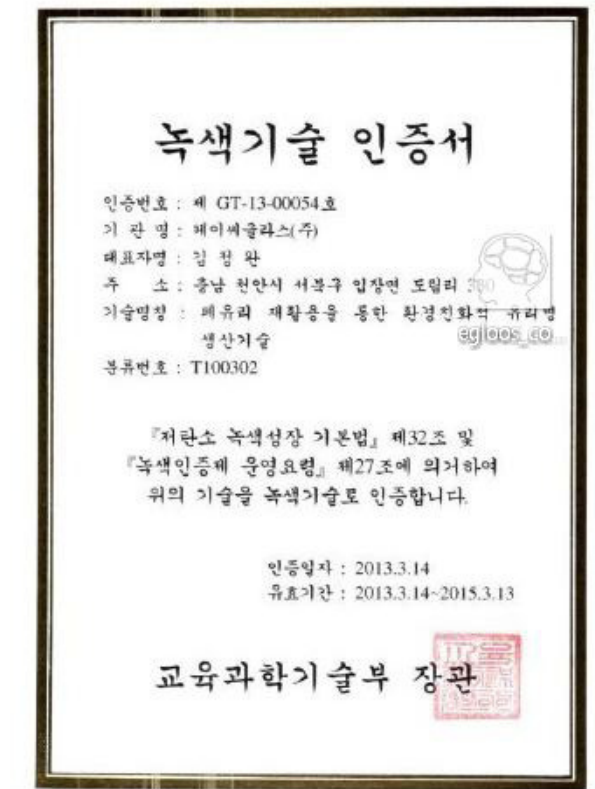
새로운 상호는 KC그린홀딩스 관계사로서 C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유리병 제조업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첨단 소재 제품 생산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Vision을 반영한 바, KC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C글라스 홍세라





## 친환경적 기술을 인정받다



KC 글라스(주)는 “폐유리 재활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유리병 생산기술”로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정부가 그 기술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녹색기술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KC글라스의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신뢰성과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자원재활용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며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 억제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KC글라스 홍세라



## 독도를 지키기 위한 길을 함께 가다

한국독도-대마도  
아카데미 KCMS  
KC Glass 방문

KC글라스 홍세라



독도와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공인받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한국독도·대마도 아카데미(사랑의 녹색운동본부 회원 포함)가 지난 3월 18일 KC코트렐 안성공장과 KC글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이달우 회장님을 비롯한 아카데미 회원 40명은 KC코트렐의 환경설비 제조 현장 및 KC글라스의 친환경 소재 생산라인을 견학한 후, 독도 분쟁지역화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및 당사의 발전 기원을 위한 기념식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KC한미산업 단합대회

# 태산이 높다하 되 하늘아래 뉘 이로다



차근차근 걷다 보면 어느새 오르는 산처럼 주  
변의 어떠한 역경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KC한미산업 앞에서는 단지 하늘 아래 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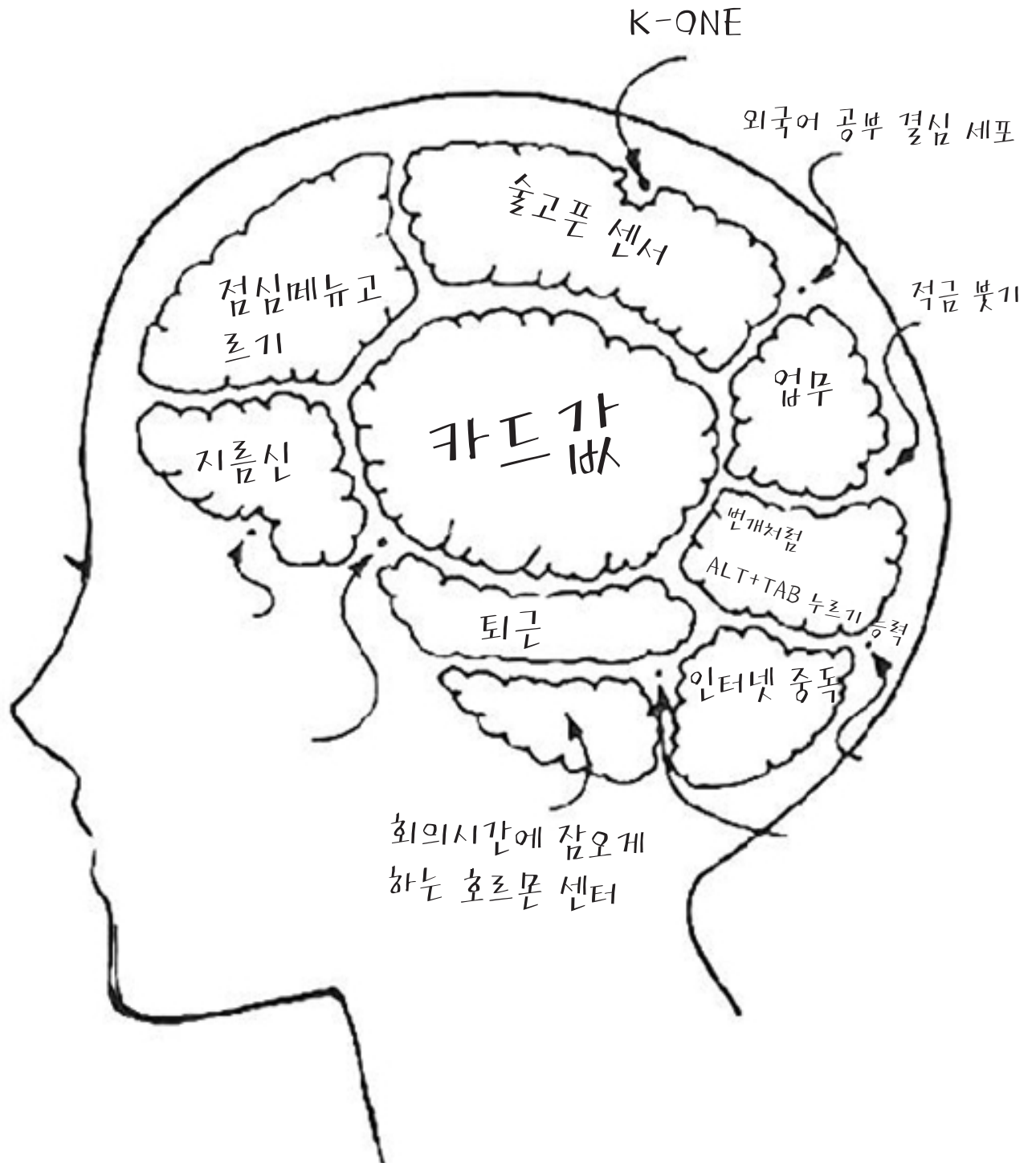
지난 03월 30일 토요일, kc한미산업(주) 가족이 애  
사심 강화와 직원 간의 친목 및 소통을 위한 한마음  
극기 훈련으로 경남 창원시 소재 적석산(옛 마산 진  
전면 양촌 지역)을 산행 했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관계로 모든 직원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강욱사장님과 직원 일행은 회사에서  
8시 집합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고 회사에  
서 40분 소요되는 적석산으로 출발 했습니다. 적석  
산은 해발 500M의 산으로 높이보다 수직암반과 수  
평절리 바위층으로 양 봉우리를 구름다리로 연결되  
어 고공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는 공  
포감이 충분하며 정상에 도착하면 남해 바다가 한눈  
에 보이는 절경에 이릅니다.산행은 2시간 소요 되었  
는데 kc한미산업 가족은 또 한번 도전에 성공했습니  
다. 참석자 모두가 낙오자 없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  
어 모두 안전하게 정상에 도착하고 하산 했습니다.  
KC한미산업은 2011년 폐수공장 준공과 2012년 소  
각로 개선 및 폐열보일러 설치공사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과 SRF제도 시행등 소  
각 폐기물의 감소로 우리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 이  
번 산행으로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환경의

도전과 원가 절감등으로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  
고자 산행을 끝내고 돼지고기에 소주 한잔으로 “  
계속 발전하는 회사.계속 변화는 kc한미산업을 위  
하여”라고 건배하고 이강욱 사장님 인사말씀을 끝  
으로 산행을 모두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KC한미산업 박은향





아마도 지금은..





# 칭찬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많은 분들에게 제시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두번째 칭찬의 주인공은 발전민수사업부 김민환대리입니다.

김민환대리는 탁구사랑 소모임의 리더이며 산악회의 총무  
이기도 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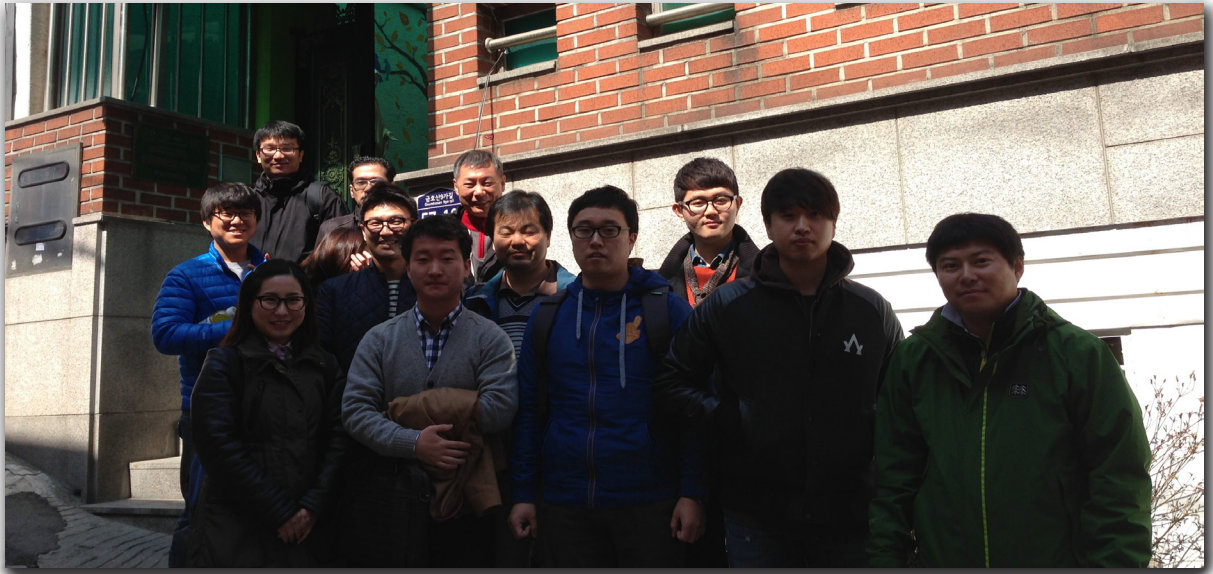
남자이지만 여자 못지않은 특유의 애교  
(필살의 무기인가 봐요. ^^),

성실성, 적극성, 친절성등에  
모두에게 Happy 바리케스를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되기때  
추천을 합니다.



# 우리는 지금

KC코트렐 사랑 나누기



봄은 몸과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충만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향긋한 꽃 내음에 녹아 내려서일까, 봄이 되면 왈랑거리는 마음에 이곳 저곳 갈 곳을 찾는 설렘으로 엉덩이가 들썩인다. 아마도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와 가벼워지는 옷들, 그리고 세상 밖으로 손을 내미는 새싹들의 속삭임에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다.

그렇게 봄날의 따스함이 완연했던 3월 23일. KC코트렐 가족들은 성모보호작업장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중증 정신지체 장애우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된 일터를 제공하는 이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들의 손이 되어주는 일이었다. 정부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 주는 일정량의 작업들이 우리에게만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 들에게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한 달에 2번 봉사자들의 힘을 빌어 작업량을 채워 나가고 있었다. 우리의 작은 손길로 그들에게 하루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날은 아동들의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을 비닐봉투 안에 넣고, 밀봉하는 것이 그들을 대신해 우리가 할 일 이었다. 해야 할 작업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서툴게 작업을 시작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 대수롭지 않게 작업을 하던 우리들을 보고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우리처럼 처음 오거나 서투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봉사자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넣으면 다 불량 처리 되요” 라며 우리의 첫 작업을 다시 뜯어 주었다.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작업했던 것들을 죄다 꺼내어 가르쳐준 대로 다시 봉투에 넣고 ok 사인을 받고 나서야 한 숨 돌리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조금씩 일이 손에 붙기 시작하면서 곁에 앉은 동료, 선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 동안 알지 못한 모습들도 알게 되었다. 도움을 주는 즐거움과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어느새 약속했던 3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손놀림만 더 빨랐다면 “생활의 달인”처럼 재빠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3시간 동안 우리가 한 작업을 보면서 처음 작업장에 도착하여 수녀님이 설명해 준 말이 생각났다. 비닐봉투 하나를 완성하게 되면 봉투 한 개당 4원, 한 박스에 1,000장, 즉, 박스당 4천원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박스당 돈을 받아 이 돈을 장애우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4명에서 한 팀을 이뤄 3 박스를 완성하였다. 3시간 동안 우리와 다른 봉사자들의 노력이 모여서 장애우들의 월급이 되는 것이다. 놓여진 박스를 보면서 처음부터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했더라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서투른 내 손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하며, 봉사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의 관심과 시간만 할애한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음을 이번에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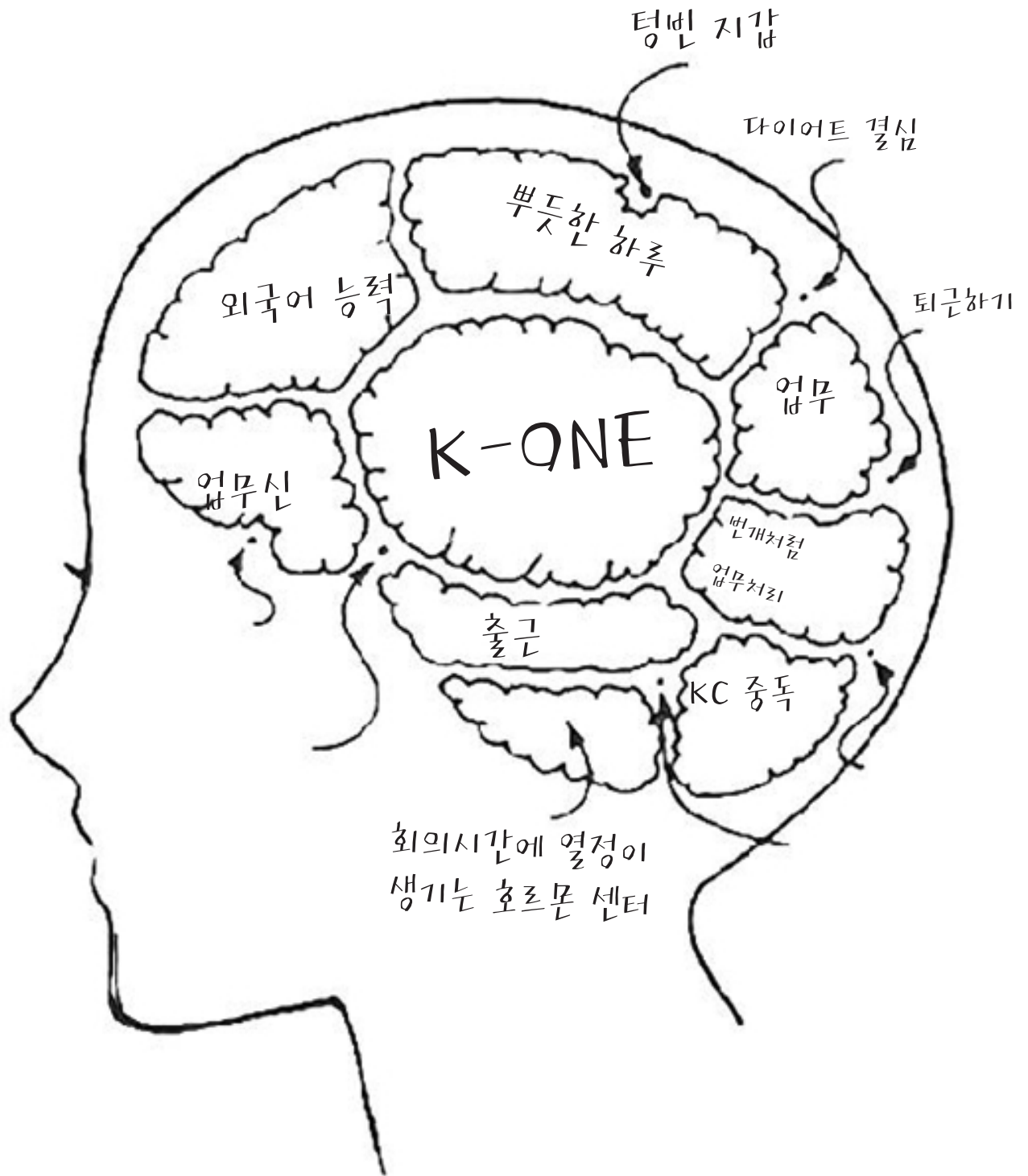
전풍림감사님, 4월 13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은학대리와 얼굴만큼 마음도 아름다운 그의 피양세, 그리고 봄 날씨 보다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눈 우리 직원들.

다가오는 4월 27일, 이번엔 좀 더 많은 코트렐 식구들과 행복 버스를 타고 성모보호작업장으로 나들이 가는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지원팀 박제이







언젠가 꼭...



## 온 가족 이 함께 소리 질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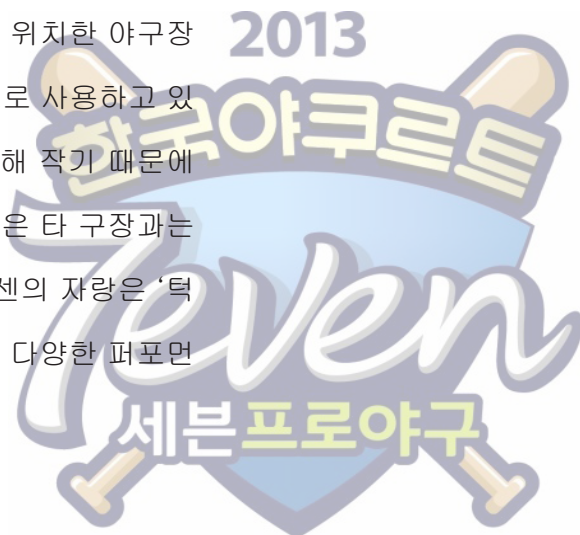
진해 군항제, 여의도 벚꽃 축제, 고양 국제 꽃 박람회 등, 봄이 되면 참으로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이런 많은 축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환호하는 축제는 프로야구일 것이다. 올해로 출범 32주년을 맞는 한국 프로야구가 3월 30일 전국 4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 박찬호의 은퇴 등, 작년에 비하여 아쉬운 점이 있지만, 드디어 NC다이노스가 1군리그에 합류하고, KT가 야구단 창단 준비에 들어가면서 10구단을 향한 즐거움이 아쉬움을 달래 준다.

지난해 715만명이 야구장을 찾을 정도로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야구는 더 이상 마니아를 위한 스포츠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야구장으로, 혹은 매일 똑 같은 일상이나 회식에 지친 팀원들과 함께 야구장 회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수도권 야구장 설명과 간단히 야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예전에 야구장을 가면 선남선녀가 함께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는 것이 부러웠다면 이제 자녀와 함께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부럽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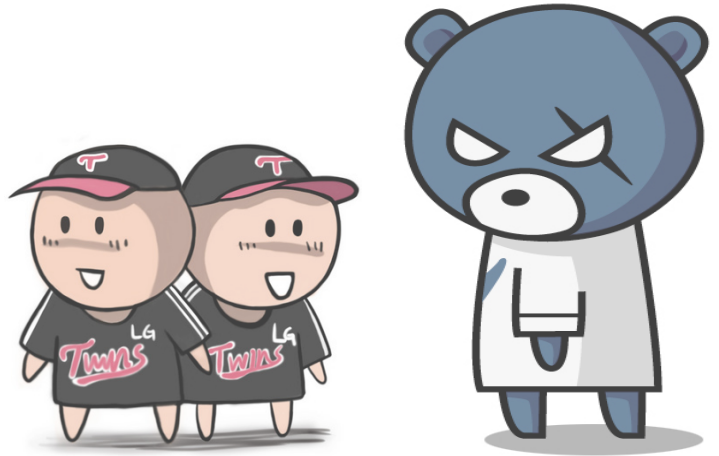
### 1. 목동구장 - 넥센 히어로즈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근처에 위치한 목동야구장은 현재 넥센 히어로즈의 홈 구장으로 사용중이다. 타 구장과 달리 외야석이 없으며, 주거지에 위치한 야구장이다. 9개 구단 중, 대구구장(삼성훈)과 함께 3루를 홈 덕아웃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루가 홈팀) 목동 구장의 장점은 타 구장에 비해 작기 때문에 좀더 가까워서 선수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목동구장의 테이블석은 타 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생동감을 전해준다. 머니머니해도 넥센의 자랑은 '턱돌이'일 것이다. 넥센 히어로즈의 마스코트 복장을 한 턱돌이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야구장을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 2.잠실구장 -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서울의 전통 라이벌인 두산과 LG가 한 지붕 두 살림을 차린 곳이다. 9개 구단 야구장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응원석과 테이블석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구장이다. 신나게 응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LG 경기를 추천하는 바이며, 응원하기에 좋은 자리는 206~208 구역, 306~308 구역이다. LG는 골수팬들이 두산에 비해 많은 편이며, 두산은 최근 여성팬이 급증하였다.



## 3.인천구장 - SK 와이번스

아마 가족 나들이 가기 최고의 경기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미약하지만 유일하게 스포테인먼트를 추구하는 모그룹의 영향으로 다양한 자리가 존재한다. 외야 일반석인 그린존은 의자가 아닌 돛자리를 깔고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으며, 패밀리 존은 가족 및 친구들과 테이블에 앉아 야구를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나들이에 가장 좋은 바비큐존은 야구장에서 직접 삼겹살을 구워먹으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프랜들리존은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을 볼 수 있으며, 경기시작전, 클리닝 타임, 경기종료 후, 그물망이 내려가 선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외야 펜스 뒤에 위치한 홈런 커플존은 커플끼리 오붓하게 관람할 수 있는 테이블 석이며, 3루 외야에 위치한 한길안과 외야파티텍은 단체회식을 하면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큰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스카이박스도 운영하고 있어 무거울 수 있는 자리에 재미를 곁들일 수 있다.





# 홍대는 젊음만 있는 곳이 아니다

##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영업시간

20:00 - 02:00 (확인 필수)

전화번호

02-333-0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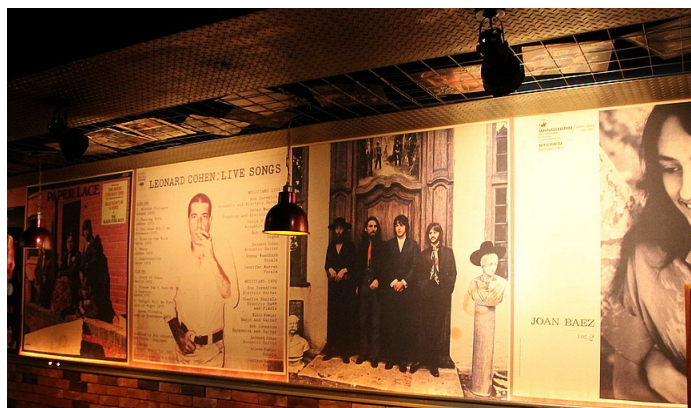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9-3

지하1층



KC코트렐 직원이 회식을 할 때, 홍대입구역 1번 출구와 젊음이 넘쳐나는 9번 출구 사이에 있는 8차선 도로는 38선보다 넘기 힘든 도로일지도 모른다. 그건 아마도 저 너머 거리는 젊디 젊은 대학생들의 공간이라고 단정짓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홍대, 그 곳에 오랜 세월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올드 뮤직 전문 카페가 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을 번안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고 김광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노래 제목과 같은 이 곳이라면, 젊은 팀원들은 빼고 세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갈 수 있지 않을까? 빼곡히 들어찬 LP판과 곳곳의 라디오, 레나드 코헨과 존 바에즈 등등의 낯익은 가수들의 포스터가 반겨주는 곳에서 옛 추억을 대내이며 맥주와 함께 추억을 마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헛개만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다!



영업시간

18:00 - 05: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2-11



술을 먹기 전에 끈디션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헛개수를 마시며 떨어진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름만 들어도 힘이 팍팍 솟아나는 이 곳에서 가볍게 피로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넘치는 힘을 손님들에 나누어 주기 위함일까 “울트라컨디션”이란 이름과 이 곳을 대표하는 메뉴, 마녀커리크림치킨은 이름만으로는 그 힘을 간음할 수 없다. 닭안심살을 커리, 허브, 크림, 치즈로 단장하고, 차려진 밥상에 감자튀김만 얹어놓은 이 마녀커리크림치킨을 한 입 베어물고, 크림생맥주를 마신다면 입안 가득 넘쳐나는 부드러움에 온몸이 녹아 내릴지도 모른다. 물론 메뉴가 맥주와 치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주와 와인, 피자과 떡볶이 정말 메뉴조차 울트라 스펙타클하다. 아담한 공간이지만 아~담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울트라 컨디션’에서 오늘 업! 되 보는 건 어떨까?

김태희가 발을 갈고, 전지현이 논을 맨다는 소  
문이 파다한 그 곳,

## 중앙아시아의 우즈벡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이다. 수도는 타슈켄트이고 우즈벡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 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어도 사용한다. 1924년 구 소련에 병합되었으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석탄·천연가스·금·동·텅스텐 등 자원으로 풍부한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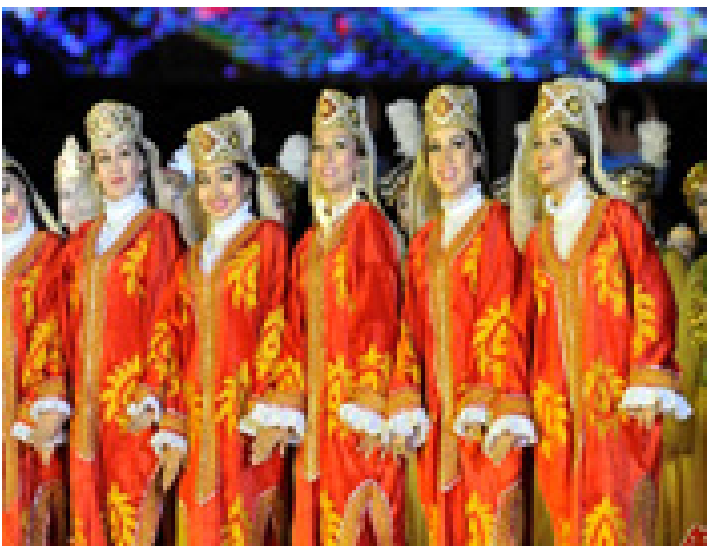
주민의 88%가 무슬림이며, 무슬림 중 70%는 수니파, 20%는 시아파이다. 원래 불교와 조로아스터 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8 ~ 9세기 경, 이슬람 제국의 침략으로 이슬람화가 되었다. 소수 종교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우즈벡 민족은 실크로드 상의 무역에 종사했던 민족이다. 우즈벡 민족에 대해서 “우즈벡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서도 장사를 할 사람들이다.”라는 카자흐 속담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즈벡 민족이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가장 많이 축적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930만 명이며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다. 가스는 러시아 후 제 2위의 매

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2007-2010년간 연 8% 수준의 GDP성장을 달성하고, 동기간 중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율은 연4-5% 수준을, 정부 예산은 GDP대비 26-27%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슬람교의 건축물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히바, 특히 사마르칸트에서 접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기념비적인 모스크사원, 첨탑, 모슬렘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속예술은 복장, 무기, 보석, 뜨개품, 수장식, 양탄자같이 반유목적인 생활에 맞는 이동 가능한 것에 많이 나타난다.

우즈벡 남자들은 보통 나이드 남자들이 길게 누버 만든 코트를 여미기 위해 사용하는 밝은 색의 띠를 제외하고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검은색에 사면에 하얀색으로 수를 놓은 두건을 쓴다. 우즈벡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며 가끔 같은 소재의 바지와 함께 무릎길이의 가운을 입기도 한다. 머리를 하나 또는 두 개로 땔은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표시이며 보다 여러 갈래로 땔은 것은 미혼이라는 표시이다.

중앙 아시아의 음식은 쌀과 향기로운 양념, 야채와 콩, 요구르트와 구운 고기를 이용한다. 북부 우즈베키스탄에서 식사는 종종 필라프, 케밥, 국수, 파스타, 스튜, 정성들인 빵과 패스트리로 구성된다. 미묘한 양념과 환상적인 단맛이 남부 우즈베키스탄 요리의 특징이다. 차는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대개 우유 없이 제공된다.



황

사

조

심

하

세

요~

발전민수사업부 김지선

3월 말~ 4월 중순 약 2주동안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각막 염증까지 겪은 이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KC가족분들의 눈 건강을 위하여 황사 등에 의한 간/단/한 눈 질환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사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하며 중국 북부 고비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황화강 상류지대에 있는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옵니다. 즉, 사막의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 중국의 하늘(대기)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과 석인재 날아와 각종 질병을 야기 시킵니다. 눈이 건강할 때는 잘 느껴지 못했으나 결막염이 걸린 후로는 실내에 있을 때보다 실외에 있을 때 공기로 인해 눈이 따가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예방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사 예보가 발령나면 일단 외출을 삼가세요
2. 외출을 할 시, 꼭 마스크!를 하시고 눈은 최대한 실눈을 뜨거나 보안경을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 항상 손은 깨끗이! 외출 전후, 사무실내에서 톡톡히 손을 씻어주세요^^

결막염이 걸렸을 당시, 눈에 안약을 넣는 것 만큼 중요한 게 손으로 절대 눈을 만지지 않는 것 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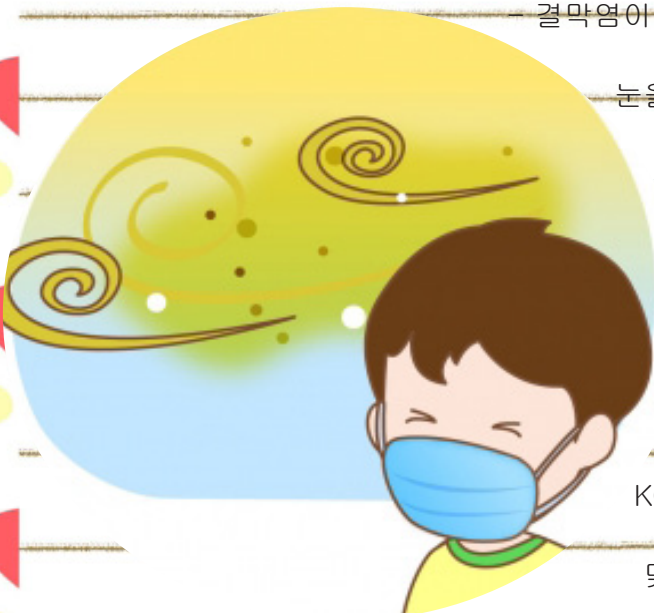
4. 그 외 물을 많이 섭취하기 등이 있습니다.

5. 눈에 이상한 조짐이 생긴다 싶으면, 바로 안과로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에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KC가족분들도 간단한 예방법 확인하시고 2013년 따뜻한 봄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옷깃을 꼭 여미게 만들던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마음까지 따스히 감싸주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러한 따스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환절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과 발을 항상 씻고 청결을 유지해 줍니다. 손만 잘 씻어도 모든 바이러스의 90% 이상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습관, 올바른 식습관 가지도록 합니다. 자칫 패턴이 틀어질 수 있는 환절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하루 3번의 식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쌓인 피로회복과 신체 balance 조절을 위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몸에 충분한 수분공급과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다섯째,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실내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차와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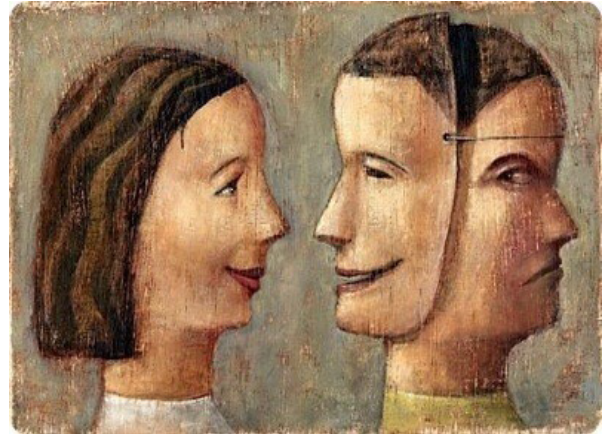
- 1.차 : 배와 도라지, 대추차, 모과차, 유자차, 생강차, 칩차, 은행, 벌꿀 등  
□ 이들은 모두 해열과 소염 작용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음식들로 따뜻한 차로 여러 번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 2.음식 : 비타민C가 풍부한 감, 귤, 토마토, 시금치, 브로커리, 딸기, 멜론, 감자 등이 있으며, 비타민B,E, 셀레늄이 풍부하여 체력증진에 좋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참치가 감기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팀 황상훈



#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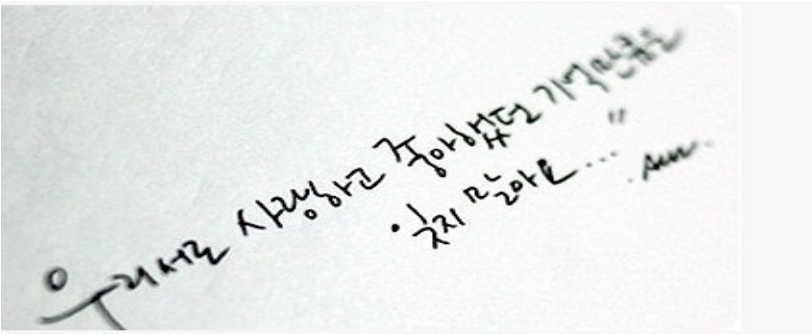
기술연구소 이창희



<연애의 온도>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 연애 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모태솔로라면 진짜 현실의 연애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영화다.

3년째 사내 비밀연애 중인 커플 동희(이민기)와 영은(김민희) 서로에게 ‘미친X’, ‘개XX’라며 욕설까지 퍼붓고 돌아섰지만 곧 서로가 그리워 눈물을 흘린다. 앞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라며 쿨하게 대하지만 집에서는 혼자 몰래 상대방의 SNS를 엿탐하고, 미행까지 서슴지 않는다. 치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의 물건을 부수 착불로 보내고, 커플요금제로 소액결제 폭탄을 안기는 등 헤어질 때 해서는 안될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영화 <연애의 온도>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해 알콩달콩 아름답기만한 사랑을 보여주는 기존 멜로 영화의 공식을 과감히 거부한다. 그렇다 연애의 온도는 참 신기한 영화다. 은행에 불륜이 얹히고 섹히고 남자주인공은 특하면 극단적으로 욱하고 일을 크게 벌인다. 불륜이야 어디에나 있지 않겠냐마는 표현이나 전개 방법이 좀 극단적이다. 하지만 주인공 두인물의 연애감정이나 심리묘사 그리고 이 주인공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사들은 그 어떤 영화 보다 참현실적이다. 특히 극단적



으로 비춰지는 이동희에 비해 여자캐릭터인 장영은 현실에서 흔히 있을만한 캐리터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공감이 갈 듯 하다. 연애의 온도는 다른 로맨틱 영화들과의 차별화는 다큐멘터리식 구성을 넣었다는 점이다. 영화에서는 어떤상황을 보여주고 등장인물들이 인터뷰를 통해 그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부분이 다른 영화와달리 매우 흥미로운 점은 단지 구성이 독특한 것 뿐 아니라 그들이 외부에 보여주는 행동과 실제 감정을 인터뷰라는 형식을 이용해 구분해준다. 즉 겉으로는 이별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잘됐다. 기분좋다 등으로 인터뷰를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방에서 혼자 펄펄 운다던가 하는 식이다.

실제 우리들도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척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끔끔 앓던적도 있지 않던가. 그리고 가끔은 웃음을 주기도 하고 가끔은 꼬덕 꼬덕 공감이 가게 하는 부분들도 인터뷰를 통해 표현된다. 이처럼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는 독특한 구성과 관객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사가 많이 표현되는 영화이다.

연애의 온도에서 기억나는 대사들..

“우리의 연애는 달콤하지도 이벤트로 가득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우리 왜 싸웠지? 싸운건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나”

“너랑 다시만나면서 네가 나랑 만나는거 싫어할까 봐 나도 눈치보고 힘들었어 너랑 있을 때 편하게 숨도 못 쉬었어 알아?”

“많은 여인들 중 82%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대, 그중에 계속 만나게 될 확률은 3%래 나머지 97%는 다시 헤어진대 같은 이유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814만분의 1이래 그래도 매주 몇 명씩 당첨되잖아, 그러니까 그3%는 정말큰거야”







# Happy Birthday

4월 2일

김종열

4월 3일

안세홍

4월 5일

보종옥  
서정세

4월 7일

안형규

4월 8일

이보람

4월 12일

성분규

4월 15일

함정석  
최진규

이종철

4월 24일

이정미

4월 25일

윤영수

4월 26일

박성우



“Every father  
should remember that one day  
his son will follow his example  
instead of his advice”



**KONE**  
WORK-SHARE

[www.kc-cottrell.com](http://www.kc-cottrell.com)

#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